



Market Index / 29일

코스피지수 ▼ 3060.27 -37.65	코스닥지수 ▼ 1001.46 -11.05	유가(WTI, 달러) ▼ 75.29 -0.16	환율(원)	1USD 1203.70 100¥ 1080.47	팔매 1162.30 1043.31	1EUR 1409.12 1CNY 192.03	팔매 1354.14 173.75
---------------------------	---------------------------	------------------------------	-------	------------------------------	-----------------------	-----------------------------	----------------------

“코로나19 재확산 속 제주경기 보합세”

한국은행 제주본부 29일 지역경제보고서 발표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 음식점업 부진 이어져
제주농업 기후변화로 피해 우려 커져 대책 필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올해 3분기 제주경제는 2분기 대비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9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 이후 내국인 관광객수 증가가 둔화되면서 업황 개선 제약에 작용했다. 이에 따라 관광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은 보합세, 음식점업은 다소 부진했다.

숙박업과 렌터카업은 7월 중 호조세를 보였으나 방역지침 강화 이후 예약률이 하락하면서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음식점업은 영업 시간 단축과 인원 수 제한 강화로 전 분기의 개선세가 둔화했다.

농산물 출하액은 하우스 감귤과 신소득 작물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수산물의 경우 입식량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출하량이 줄었다. 축산물도 폐지를 중심으로 출하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7-8월 중 취업자수(월 평균)는 3000여명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대면서비스 위주 업종의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증가폭은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농·축산

물과 석유류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폭 확대 등으로 오름세(전년동기대비 3.3%)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보고서 제주권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기후변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중 제주시 평균 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16.3℃)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태풍 및 장마가 지속되면서 장마일수(49일) 및 장마기간 중 강수일수(28일)가 역대 가장 긴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품질이 저하돼 농산물 출하량이 감소하는 한편, 제주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에 대한 경쟁 심화로 농가의 수

익성이 악화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과수 재배면적 확대 유도, 스마트팜 도입 추진 등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농림어업 비중이 9.0%(2019년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타 지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잠재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금융권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억제하면서 자금 조달이 막힌 실수요자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서 꼭 필요한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대출, 신용대출이 막힌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저소액층이나 취약계층이 제도 금융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에 부착된 대출 안내문. 연립뉴스

“도두하수처리장 공사비 등 재검토해야”

사업 입찰공고 유찰… 대한건설협 제주도회 촉구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29일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입찰공고 유찰에 따른 입찰문을 내고 사업비와 공사기간 등의 문제에 대한 신속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건설협회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미래 제주의 기초적인 하

수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중차대한 일로, 증설이 더 지체됐다간 하수처리장이라는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면서 “공고전에 업계에서는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외면됐다. 제주도도와 한국환경공단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찰 사유인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없으면 현대화사업은 더 이상 진척없이 큰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간에 행정의 대응 방안이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이제라도 제주도와 의회가 협의회를 구성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어린이 환경수호대 모집

제주관광공사는 내달 16-17일 ‘생태, 환경’ 테마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가족 참여형 관광 콘텐츠 ‘숲으로 오라, 어린이 환경수호대’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공사는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환경수호대를 사전 모집한다. 어린이 환경수호대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165명을 사전 모집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신세계 제주아웃렛 내달 조건부 개점

중기부 도내 지역상권 반발로 사업조정 권고
중복 브랜드 입점·명절 연휴 판촉 행사 제한

제주신화월드 내 조성 예정인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중앙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조정 권고를 받고, 이르면 내달 중으로 조건부 개점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신세계 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 사업 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 5월 개설계획이 예고된 이후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울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 조정 권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고 내용은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를 제한하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의 홍보를 연 4

회 이내로 제한, 명절 연휴 기간 판촉 행사 제한 등이다.

다만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판매 제한의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거나 도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해당 브랜드 점주가 입점하려는 경우 허용된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에게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이행하도록 권고된다.

이와 관련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지역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심의회 조정 권고사항을 이행 할 것”이라며 “어려가지 제반 준비를 거쳐 내달 중으로 오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당초 지난 7월 개점할 예정이었으나, 도내 지역상권의 반발로 미뤄지고 있다.

신화월드 내에 추진되는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철수한 자리에 수입 브랜드 매장 60여곳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운영 면적은 8834㎡ 규모다. 이태윤기자

7월 제주 주택담보대출 큰 폭 상승

한국은행 여·수신 동향 발표
기업·가계 대출 모두 증가해

제주지역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7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29일 발표한 ‘7월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7월말 도내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35조1879억원으로 월 중 2551억원이 증가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 여신(-67억원→888억원)은 증가로 전환됐고, 비은행금융기관 여신(1634억원→1663억원)의 증가규모는 소폭 확대됐다. 차입주체별로 보면 기업대출(752억원→1589억원)과 가계대출(787억원→1095억원) 모두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기업대출은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이 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가계대출은 집담대출 취급 등 주택담보대출(118억원→634억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금융기관 수신잔액은 33조1737억원으로 전월대비(6월 481억원→5928억원) 증가폭이 확대됐다.

예금은행은 시장성수신(양도성에 증서, 은행채 등)은 감소로 전환됐으나,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944억원→4085억원)이 늘어나면서 증가로 전환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신탁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이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윤기자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진정한 제주출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인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용량 : 20kg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